즉시 배포용: 2015년 11월 5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지사, GARCIA PADILLA 지사 및 1199/SEIU, 푸에르토리코의 의료 및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 노력을 출범시키기 위한 서밋이 뉴욕주에서 개최됨을 발표

서밋은 푸에르토리코의 재정 및 보건 위기에 대한 관심을 끌고 워싱턴이 행동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구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lejandro García Padilla 지사 및 1199/SEIU와 함께 워싱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의료 및 경제 위기를 해결하도록 설득할 방법을 구상하기 위한 서밋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몇 주 내에 개최될 이 서밋은 전국적 노력의 시작이며 정부, 보건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활동가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는 Cuomo 지사가 곤궁한 시기의 푸에르토리코와 제휴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온 일련의 조치 중에서 최근의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위기는 현지 정부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 수 백만 명의 생계에도 점점 더 충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문제는 뉴욕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으려고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위기는 수 십년 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우리는 단지 워싱턴의 정치적 의지 부족 때문에 상황이 계속 악화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주는 공정성과 경제적 형평성을 위한 투쟁에서 푸에르토리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연방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밋은 지난 9월에 Cuomo 지사와 함께 푸에르토리코를 다녀온 뉴욕주 연대 사절단 멤버들과 조율하여 계획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이 발표를 Old San Juan에서 SOMOS el Futuro 가을 컨퍼런스에 참석한 동안에 하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지사 García Padilla도 다가오는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주로 올 계획입니다.

García Padilla 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와 뉴욕주의 많은 연방 및 주 의원들이 보여주신 우정과 헌신은 매우 고마우며 그것은 푸에르토리코가 의료 및 경제 위기를 피하도록 돕는 데 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자치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섬과 본토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단결하여 워싱턴에 촉구해야 합니다."

1199 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의 총재 George Gresham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노조의 350,000 의료 근로자들은 섬의 우리 친구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와 함께 이 위기를 워싱턴이 해결하고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국민들에게 당연한 의료를 위한 평등한 예산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Puerto Rico Healthcare Crisis Coalition의 회장 겸 1199 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의 전 총재 Dennis Rive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냉담하고 차별적인 예산 정책이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350만 미국 국민들에게 전례 없는 의료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의사들은 섬을 떠나고 있고, 입원 환자들은 요원들이 부족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서 Cuomo 지사의 리더십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극히 중요합니다."

지난 9월에 Cuomo 지사는 Puerto Rico의 주지사인 Alejandro Garcia Padilla의 초청을 받아 대표를 파견하여 현재 진행중인 의료 위기 및 경제 난국과 이에 대한 미 연방의 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마친 후 Cuomo 지사는 Puerto Rico 정부의 의료 위기, 에너지 설비 투자, 기반시설, 농업, 관광산업 및 기술개발 원조를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Puerto Rico의 의료 개혁안에 추가적인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 Cuomo 행정부의 수뇌부들은 이번 달 초에 Puerto Rico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 본토 다음으로 세계에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미국 본토에는 약 500만 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